

한진화학, 친환경기업이라 불러주요!

Sony의 그린파트너로 등극 ... UV · 플라스틱 도료의 친환경화에 앞장

목공용 도료의 선두주자인 한진화학(대표 안성철)이 금속 및 플라스틱용 도료의 친환경화에 주력해 2004년 8월23일 Sony의 그린파트너로 선정됐다.

그린파트너 인증서



Sony의 그린파트너는 까다로운 환경기준 및 심사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린파트너로 지정된 국내 페인트기업으로는 한진화학이 SSCP, 조광페인트에 이어 세 번째이다.

한진화학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유해환경물질을 배제한 친환경 페인트가 각광받고 있어 Sony의 그린파트너로 인증된 한진화학 역시 친환경 도료기업으로써 플라스틱 도료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포부를 밝혔다.

한진화학은 약기에 도장하는 목공용 도료가 주력으로 국내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삼익, 영창 등 주 수요기업의 해외이전으로 내수시장이 감소하자 UV 도료 및 핸드폰용 도료에 주력하며 플라스틱용 도료 사업을 강화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화학은 전체 매출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도료사업의 호조로 2003년 매출액 325억원에서 2004년 450억원 매출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10/06>